

성경의 맥잡기 - Chapter 5. 분열왕국 시대

D.P.Joshep 2010-06-07 22:52:56

조회 98 스크랩 0

솔로몬 시대에 성전과 자신의 궁을 짓기는 하였지만 그 노동은 정말 고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죽은 후, 다음으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자신들의 힘들었던 부분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더 가혹하게 통치할 것을 엄포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데,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르호보암이 계속 통치하는 나라를 남유다라 합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이스라엘은 이 두 지파를 제외한 10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을 배출하며 나라를 이어왔지만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고 되고 신약성서에서 언급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말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보다는 늦게 패망하게 되는 데, 20명의 왕을 배출하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13장까지를 통하여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누어지게 됩니다. 두 나라는 문화나 영토 등의 모든 것은 다 분리할 수 있지만 신앙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기에 북이스라엘에게는 여간 고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 왕이 생각한 해결책이 단과 '벤엘'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벤엘'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영적인 성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은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북이스라엘의 최악은 망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14장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앙숙으로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16장에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왕이 등장하고 17장에서 이에 걸 맞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의 그에게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으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까마귀의 배달 음식과 시냇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채움과 공급하심을 알아 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시냇물이 완전히 마르고 나서 하나님의 명으로 시돈이라는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시돈은 아합왕과 쌍벽을 이루는 악한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적지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과부 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집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채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과부의 자식이 죽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데,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징표이자 상징입니다. 이후에 18장에서 그는 갈멜산으로 가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홀로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는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후계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22장에서부터 잠시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공존시대를 갖게 됩니다. 아합왕과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사돈지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왕은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에서는 분열왕국시대에서 두 나라가 잠시 공존의 시대를 겪기도 하지만, 또한 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적혀있는 성경입니다. 두 나라의 왕조를 잠시 보면, 열왕기상 후반부에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왕과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하나였던 여호사밧 왕이 사돈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의 두 아들 아하시야와 요람이 차례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은 모압과 암몬과의 전투를 연합하여 치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하나님의 명으로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었으니 이가 바로 예후입니다. 예후는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 왕을 죽이고 또한 요람을 보려온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북이스라엘에 피 비린내가 나는 숙청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아합가문 모두를 숙청해버리고 바알 선지자들의 씨를 말려버린 것입니다. 아합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도 성 밖으로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왕의 수십 명의 아들들을 편지 한 통으로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런 예후 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지만, 그도 말년에는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남유다에서는 아하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자 그의 어머니였으며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

이 직접 남유다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의 가문 모두를 죽이게 되는 데, 아달라 여왕의 딸인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성전에 숨김으로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후에 요아스가 7살이 될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아달라를 숙청하게 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보면 므나헴 왕때부터 아시리아가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베가 왕 때에 아시리아에 점령당하기 시작하더니 호세아 왕 시절에 멸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상숭배 등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우상을 더욱 숭배하게 되고 그러다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혼합되게 됩니다. 아시리아에 점령당한 후에 그 나라의 정책인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 멸망하게 됩니다. 강제 이주 정책은 점령 당한 이 민족들을 강제 이주하여 혼혈화 시키는 정책으로서 그 민족의 뿌리와 자긍심을 흔들어버리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훗날 사마리아로 불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경우에는 몇몇 선한 왕들이 있음으로 북이스라엘 보다는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사에서 보면 그 당시 커다란 제국이었던 아시리아가 남유다 정복에 고전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을 보면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남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신앙적인 정화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없애고, 출이집트 시절부터 간직해오고 우상화까지 되어 갔던 놋뱀도 산산조각을 냈다. 히스기야 왕 6년 쯤 되는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14년에는 아시리아에 조공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19장에서 히스기야의 남유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시리아를 패격시키기도 합니다. 20장에서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알고 눈물의 기도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 생명이 연장되고 나서 태어나게 된 므낫세로 인하여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자식마저 이방신에 제물로 바칠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던 시절이 가장 안정적이었고 또한 므낫세는 55년간 통치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안정적인 생활이 그를 타락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그 다음 왕인 아몬 왕까지 타락하고 악한 왕으로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왕이 돼서 다시 신앙적인 정화를 하였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요시야 왕 시절부터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한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 시절에 아시리아는 망하게 되고 그 아시리아의 잔당들은 이집트에 구조요청을 하게 됩니다. 영토에 대한 욕심을 보이던 이집트는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하여 갈그미스로 출정하게 됩니다. 이때 이집트의 왕은 요시야 왕에게 자신들을 방해하지 말 것을 정중하게 편지로 요구합니다.(위 내용은 요세프스 역사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이집트에 대항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요시야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4번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한편 갈그미스로 출정한 이집트와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BC 609년에 전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승부는 다음으로 미루게 되고 다시 본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지나가는 길에 남유다의 여호아하스를 강제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2번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놓는다. 그리하여 요하야김 왕은 친이집트파인 왕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BC 605년에 다시 이집트와 바벨론이 싸우게 되었는데, 이때에는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친이집트 정책을 쓰였던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 때에 1차 포로로 다니엘을 포함한 귀족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이집트를 위해서 바벨론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의 황제는 주변나라를 시켜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야호야김은 죽게 되고 남유다에서는 그의 아들 여호야킨을 8세의 나이에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3개월 후에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여호야킨 대신에 요시야의 마지막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도 결국에는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고 이에 바벨론의 황제가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1년 반 동안 버티다가 완전히 함락되면서 성전이나 궁들이 모두 훼파되게 됩니다.